차기 '市·道지사 도전' 주목받는 4人

광주 이용섭·강기정…전남 이낙연·주승용
2년후 광역단체장 선거 유력 출마자 거론
당사자들은 "호사가들의 입방아" 손사래

이용섭 의원

강기정 의원

이낙연 의원

주승용 의원

4·11 총선이 끝난 후 광주·전남지역 19명 당선자의 향후 정치적 행보가 주시되는 가운데 일부 당선자들이 2년 후 광역단체장선거에 출마할 것이란 전망이 일찌감치 나오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 2년 후 선거 출마설이 나오는 것은 19명 당선자 중 초선이 5명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 당선자가 정치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도전을 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번 광주·전남 총선에서 4선은 2명, 3선은 6명, 재선 의원은 6명이 탄생했다.

광주지역 당선자의 경우, 당권 내지 대권을 꿈꾸거나 초선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광주시장에 욕심이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일반적 분석이다. 비록, 아직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기회가 되면 출마하겠다는 뜻이 있다는 것이 주변 인사들의 전언이다.

이미 지난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에 나선바 있는 재선의 이용섭 의원과 3선의 강기정 의원은 광주시장 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유력한 도전자로 꼽힌다.

전남의 경우 전남 서부지역의 대표적 정치인인 4선의 이낙연 의원과 동부지역의 대표 주자인 3선의 주승용 의원이 2년 후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직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오래전부터 도백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행보를 해왔으며, 주 의원은 2년 전 도지사에 뜻을 두고 당내 경선에 도전장을 던진 바 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당선자가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이번 총선에 뛰어들어 집중 비판을 받았듯이 총선 당선자가 임기를 마치지 않은 채 지방선거에 도전할 경우 비난 여론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총선에서 2년 후 지방선거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주민들에게 묻지 않은 상황에서 도전을 감행할 경우 유권자를 위한 정치행보가 아닌 자신의 입신양명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변수는 오는 12월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정권교체를 이룰 경우, 광주·전남지역 당선자들도 입각 등을 통해 변신을 꾀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지방선거 출마 전에 정치적 행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 측에서는 대부분 "호사가들의 입방아일 뿐"이라며 "당장은 정권교체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우선은 민생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해야 할 입장이지 2년 후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17일 "광주·전남지역 총선이 큰 이변이나 감동이 없이 끝나면서 뒤끝이 지방선거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설익은 출마설은 출마설은 일부 당선자가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설 경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에 총력"

맹형규 행안부 장관 취임 2년 광주일보 인터뷰

"여수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15일로 취임 2주년을 맞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 회원사와 인터뷰에서 "여수 엑스포의 성공 개최의 관건은 국내외에 '붐'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여수 엑스포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맹 장관은 "이를 위해 19일 여수 현지에서 전국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여수 엑스포에 대한 협력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관람을 권장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전거 하이킹 매니아인 맹 장관은 오는 22일 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는 4대강 자전거 길과 관련 "영산강과 금강, 한강을 잇는 자전거 길과 영산강과 섬진강, 남강, 낙동강을 잇는 자전거 길을 개통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국을 잇는 자전거 길은 국민 화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장 임명제 국회서 걸러질 것"

"지방재정 악화 채무관리로 극복"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광역시의 기초단체장 관선 임명과 구의회 폐지 결정 등과 관련, 맹 장관은 "국회에서 걸러질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고 말한 뒤 "아직 공식적인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전남 등 농촌지역 다문화 가정 지원 방안에 대해 맹 장관은 "현재 다문화 인구가 12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모두 우리 국민이며 대한민국의 동력이고 근간"이라고 강조한 뒤, "지난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정 지원 조례 표준안을 마련했고 지난해부터 전담부서(다문화사회지원팀)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악화 문제와 관련, 맹 장관은 "전반적으로 지방 재정이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대형 투자사업과 경제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채무 관리를 보다 엄정히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맹 장관은 특히, "UN으로부터 2년 연속, '전자 정부 세계 1위'라는 평가를 받으며 '행정 한류'의 흐름이 자리잡았다"며 "전자 정부 시스템 수출도 지난해 2억 달러를 넘어선데 이어 올해에는 3억 달러의 수출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맹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안전하고 따뜻한 선진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을 바탕으로 사람이 바뀌어도 '따뜻한 행정'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수세계박람회 D-24

해양로봇관 준공

"세계 최첨단 로봇 만나보세요"

물고기 로봇 여수세계박람회 해양로봇관에 선보이는 '피로'.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로봇이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 제공〉

6.5m 최장신 로봇 키 6.5m의 국내 최장신 로봇 '네비'는 가상의 해저 6000m의 심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모습을 연출하게 된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 제공〉

여수세계박람회(5월 12일~8월 12일·이하 박람회)에 가면 사람처럼 웃고 찡그리는 '에버', 아쿠아리움에서 헤엄치는 '피로' 등 한국·미국·영국·프랑스의 최첨단 로봇을 만날 수 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동석)는 17일 로봇관련 단체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우조선해양로봇관 준공식을 열었다.

해양로봇관은 2040년 수중 6000m의 가상 심해를 배경으로 인간을 대신해 로봇 '네비'가 대장이 돼 자원탐사와 광물을 채굴하는 모습이 연출돼 있다. 자원고갈로 신음하는 인류에게 로봇이 새로운 희망을 전해준다는 이야기를 담았다.

출품된 각국의 로봇들도 흥미롭다.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모습을 갖춘 미국 최초의 휴머노이드로봇 '찰리', 영국의 '데스피안', 프랑스의 '나오', 물고기로봇 군무를 선보이는 '피로' 등 73종의 로봇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또 전시기간에는 케이팝 노래에 맞춘 로봇들의 춤, 합창, 연기 등이 펼쳐지고 로봇축구 세계 챔피언인 'DARwin-OP 로봇'의 축구경기와 20여 대의 댄스로봇들의 신나는 응원도 선보인다. 이 댄스로봇은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열기를 재연하고, 로봇과 관람객이 하나될 수 있도록 연출했다.

어린이들이 로봇 설계와 제작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는 체험프로그램과 신제품 로봇 발표회, 로봇제작자와의 만남 등 다양한 이벤트도 곁들여진다.

해양로봇관은 대우조선해양(주)이 123억원의 사업비 후원과 설계·시공을 담당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미국 버지니아공대의 로멜라(RoMeLa)연구소 등이 전시에 참여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사돈 남말 하시네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트래블 조이 여행사 JOYTRAVEL

대표전화.(062)234-3222

대표이사 최 금 환

http : www.joytour.kr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FAX (062)234-3141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선박 목포-제주도 품격 ₩139,000~ 실속 ₩109,000~

장흥-제주도 품격 ₩159,000~ 실속 ₩149,000~

불포함:기사&가이드팁(₩10,000),석식,수송비(광주-목포&장흥)

선박+항공 목포+무안공항 ₩139,000~

불포함:기사&가이드팁(₩10,000),유류할증료(₩13,200) 석식,수송비(목포-광주)

항공 광주-제주도 ₩259,000~

불포함:기사&가이드팁(₩10,000), 석식

울릉도 2박 3일 ₩325,000~

1박 2일 ₩294,000~

홍도,흑산도 1박 2일 ₩189,000~

시드니 포트스테판과 울릉공의 만남 6일 ₩1,090,000~

특전 : 5대특식 3성급호텔, 시드니타워, 모노레일탑승, 프로폴리스 치약1개 제공(객실당)

불포함 : 유류할증료(₩350,000),기사&가이드팁($60)

카멜리아로 떠나는 온천 즐기기~~!!

4일 구중산 빌라형통나무콘도 (출발확정) ₩369,000

출발일 5/6, 9, 1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20,000), 광주-부산 수송

4일 일본 전통료칸 스지유 마을 온천 즐기기 ₩499,000

출발일 : 5/6, 9, 1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20,000)

4일 나가사키, 유럽풍의 하우스텐보스 ₩519,000

출발일 : 5/6, 9, 1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20,000), 광주-부산 수송

4일 [품격]항공으로 떠나는 오사카,교토, 와카야마

출발일 : 5/16 ₩899,000

불포함: 광주-부산 수송

3일 [실속]오사카, 교토, 고베 ₩699,000

출발일 : 5/16

불포함: 광주-부산 수송, 기사&가이드팁

[무안-대만] 전세기 '5월26일' 딱, 하루!!

☞ 항공사 : 중화항공 (CI항공)

☞ 항공스케줄

5월26일(토) 출발 : 무안 → 대만 [07:30 - 09:00]

5월28일(월) 도착 : 대만 → 무안 [19:30 - 23:00]

무안에서 떠나는 싱가폴/바탐 3박 5일 (상해경유)

3박5일 상해/싱가폴(1박)/바탐(2박) ₩1,149,000~

3박5일 상해/싱가폴(2박)/바탐(1박) ₩1,219,000~

(10명 이상 출발가능)

불포함 : 개인경비, 인도네시아 입국비자(10$), 매너팁

무안에서 떠나는 중국여행~

4월 무안-북경/평요/면산 ₩869,000~

5월 무안-북경/평요/면산 ₩919,000~

4월 무안-상해/장가계 ₩899,000~ (※4/23-출발확정)

불포함:개인경비,중국단체비자,기사&가이드팁

무안에서 떠나는 방콕/파타야 3박5일(상해경유)

알 뜰 ₩839,000~

실 속 ₩789,000~

품 격 ₩989,000~

(10명 이상 출발가능) 불포함 : 개인경비, 매너팁

무안에서 떠나는 홍콩/마카오/심천 (상해경유)

3박 4일 상해/홍콩/심천 ₩849,000~

3박 4일 상해/홍콩/마카오 ₩859,000~

4박 5일 상해/홍콩/심천/마카오 ₩989,000~

(10명 이상 출발가능) 불포함 : 개인경비, 매너팁

4월 무안-상해/장가계 (※4/30-출발확정) ₩1,020,000~

5월 무안-상해/장가계/주가각 (※5/17-출발확정) ₩1,150,000~

※ ALL포함, 무안출·도착기준

4월 무안-북경/만리장성 ₩369,000~

5월 무안-북경/만리장성 ₩399,000~

4월 무안-상해,항주,소주 ₩379,000~

5월 무안-상해,황산,항주 ₩579,000~

5월 무안-상해,황산,삼청산 ₩619,000~

불포함:유류할증료(₩120,800),단체비자,가이드&기사팁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 제동다 2003-1호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지역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경비없음 (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국 비지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